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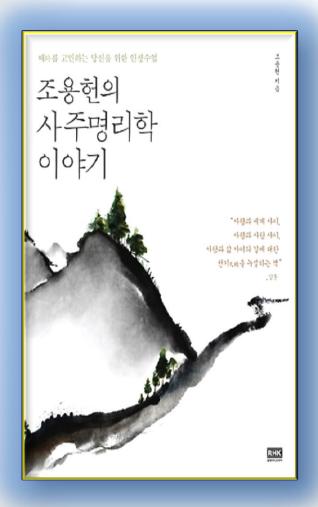
# 조용헌의 사주명리학이야기



조용언 지음 박승균 작성

## にな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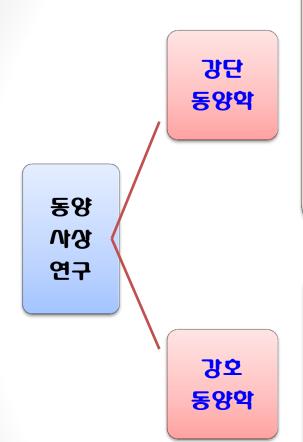




- → 쪼영언 끼음
- → 출판사 RHK
- → 때 時를고민하는 당신을위한 인생수업
- → 지금 우리에게는 인생사 '굿타이밍' 을깎는지에가필요이다.
- → 2002년 사꾸명리약 베스트셀러를 12년 만에 다사 보강, 깨탄생안 책!

## 동양사상의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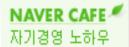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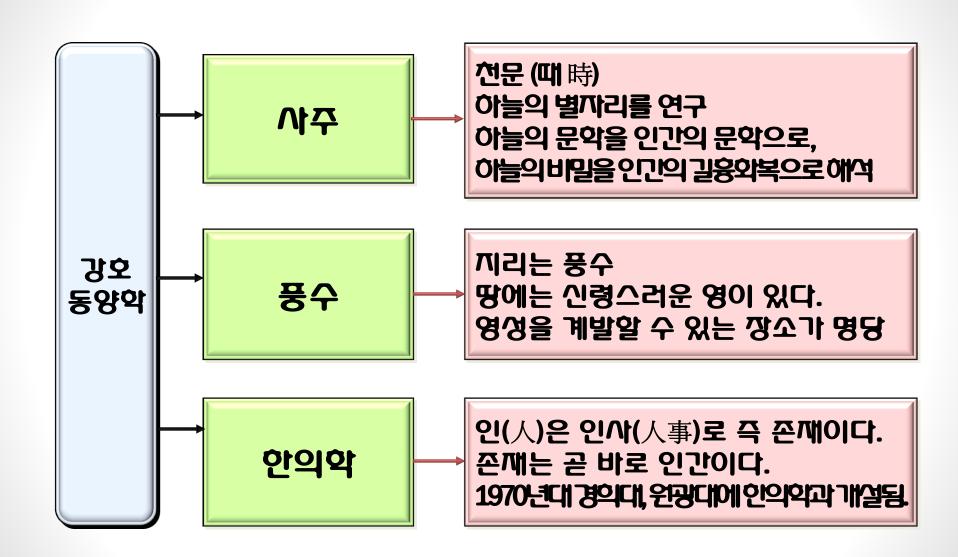
악교에서 가르치는 동양사상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논문을 쓰는 데 초점을 맞춘다 분석적이고 영이상악적인 사고의 연마에는 효과 있으나, 연실문제의 해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논문을 중시하는 악교 강단에서만 통하는 동양악이다. 강단을 떠나기만 하면 굶어 죽는 차원은 강단파이다.

강호에서 작중우돌하는, 실전에서 요구되는 동양학이다. 제도권이 아닌 재야의 기인, 달사들이 명맥을 이어음 'TV동양악'이라는 전대미답의 새로운 장르를 개석안 도올 김용옥은 강단을 떠나 굶어 죽지 않았으니 강호파로 분류할 수 있다.

강호동양학 3대 과목 : 사꾸, 풍수, 안의학 이는 쪼선시대 과거 시엄 '잡과'의 실용적인 과목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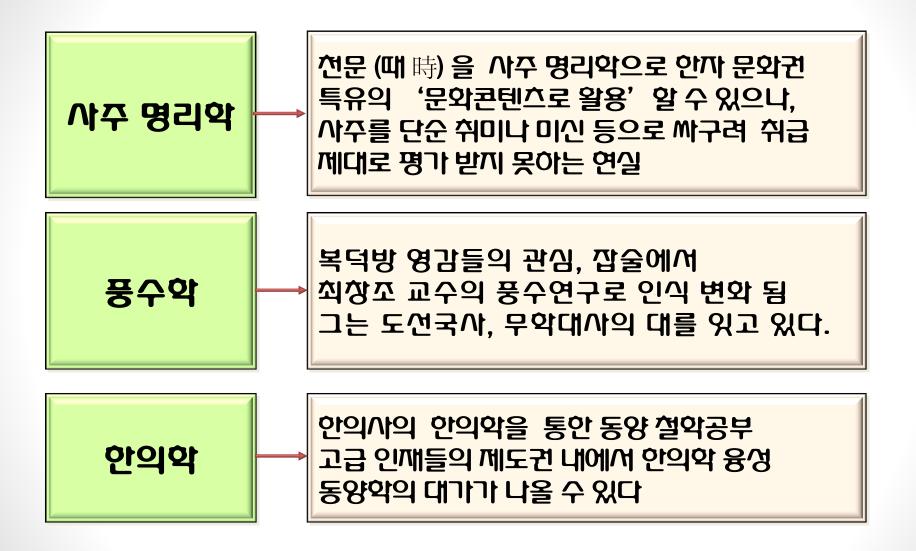
# 강오동양악





## 사꾸명리학의 연주소





## 운명의 이치를 따끼는 약문(명리약)



# '연월일시(年月日時) 기유정(旣有定)인데 부생(浮生)이 공자망(空自忙)이라!'

"이것은 연월일시(사주팔까)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뜬구름 같은 삶을 사는 인생들이 그것을 모르고 공연이 바쁘기만 하다"는 옛 전인들의 말이다. 삶이라는 것이 예정조와(豫定造化)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쓸데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부산하게 움직이지만, 결국 이미 정해진 운명에서 도망갈 수 없음을 설파안 방양전완이 있거나, 또는 대단안 성공과 실패를 경엄알 때 이를 사주팔까 탓으로 돌리는 관습이 있다.

'팔자인가보다 하고 사는 거지 뭐!',

'자주팔자가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팔자가 세서 그렇다' 등등은 한국 사람들의 인생관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매사에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듯이, 이를 부정으로 보면 숙명론에 함몰된 의지가 박약한 인간들의 넋두리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납득하기 힘든 연속극을 담백하게 감 상하는 감상법의 핵심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운명의 이치를 따지는 학문'이라는 뜻에서 이를 통상 명리학(命理學)이라고 부른다

119힐링캠프 (naver blog)



## ハマッか(四柱八字)

어느 사람이 출생한 연(年) •윌(月)•일(日)•시(時)에 해당되는 간지(干支) 여덟 글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으나, 사람은 이 팔까의 종고 나쁨에 따라 그 일생(一生)이 짝우된다는 관념에서, 일생의 운수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됨.

그리고 이것으로 안 사람의 와(禍)·복(福)·생 (生)·사(死)를 판단하기도 함.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3.30)



#### 사주팔자는 탯줄 자르는 시간으로 정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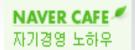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탯줄을 자르는 순간에 천체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로부터 에 너지를 받는다. 탯줄은 산모와 아이가 연결되어 있도록 해주는 장치다.

이 탯줄을 자를 때 아이는 부모와 분리가 된다. 분리가 되면서 개체로서 독립하는 셈이다. 이 독립 분리되는 상황에서 아이는 어머니의 영향을 벗어나서 우주의 에너지를 최초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탯줄을 자르는 순간에 천체에 떠 있는 별들 중 어느 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는가를 보는 것이 사주팔자다.

동양의 사주팔자는 서양의 점성술과 이런 점에서 같은 원리다. 별의 영향으로 인해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고체계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119힐링캠프 (naver blog)

## 명리약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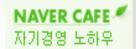
#### 문헌상 기록

- 경국대전에 사주팔자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 기록이 있다.
- 경국대전에 나타나 있는 과거시험 잡과(지금의 전문기술직)중 음양과가 있다.
- 음양과(陰陽科)는 천문학, 지리학, 명과학(命課學)으로 나뉘며,
- 초시(천문학 10명,지리학과 명괴학 각4명)와 복시 (천문학 5명,지리학과 명과학 각2명) 선발
- 명과학이란 자주팔자에 능통한 관료를 채용한다.
- •가장 대표적인 과목을 꼽는다면 [서자평연해자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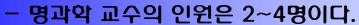
#### 비공식 명리학 등장 시기

- 15세기 후반 이전에 조선에 유입 추측된다.
- <조선왕조실록> CD롬에서 '팔자'라는 단어를 검색한 결과 태종 17년(1471)에도 공주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 남자의 팔자를 보았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 왕실에서 사주팔자를 보고 혼사를 정하는 풍습이 그 때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이로 미루어 보아 기록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서자평>의 명리학이 이미 들어와 있었으며, 왕실을 비롯한 일부 계층에서 사주팔자를 통해 그 사람의 운명을 예측 하거나 혼사를 할 때 궁합을 보는 풍습이 유행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 명리악과 교수란?



인원 근무지



- 3년마다 돌아오는 전국규모의 과거시험에서 뽑았으니 매우 적은 인원만 채용한 셈이다.
- 왕실의 전용 아꾸 상담아로 근무처도 서울의 궁내에서만 거주
- 지방출장이나 일반인 사주 팔자를 보는 일도 허락되지 않음
- 어가 없이 궁궐 밖 사람과 접속이 불가 했다.
- 이는 왕일의 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직급 및 하는일

- <mark>- 명과학 교수라는 끽급은 잡과에 소속돼</mark> 서열이 낮은 편이다.
- 그러나 그 업무적 성격상 왕실의 은밀한 정보를 접촉할 수 있는
   까리라 찍급이 낮다고 해서 함부로 볼 까리가 아니었다.
- <mark>- 궁궐 내 공주나 왕까의 궁합, 부부의 합궁 시 그 날짜 택일 등</mark>
- <mark>- 그 아쭈팔짜를 기록하는 일, 건물 신축을 할 때 길일 잡기</mark>
- <mark>- 임금의 명에 따라 대신들 개개인의</mark> 사주팔자를 봄

### 왕자들의 사꾸팔자, 대권 양배의 필수요소



출처: http://ko.wikipedia.org

궁궐 안에서 근무하는 명과학 교수의 업무 가운데 중요한 일 하나가 왕자들의 사주팔자를 보는 일이었다.

조선시대의 임금은 자식을 많이 낳았다. 그러므로 많은 자식 중에서 과연 어느 왕자(대군)가 왕권을 이어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뭇사람들의 지극한 관심사였다.

물론 장남에게 우선순위가 있지만 조선왕조의 왕권승계 과정 을 보면 장남이 승계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궁궐 내에서 근무하는 의원(醫員)과 함께 명과학 교수는 왕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전에 개입하는 일 이 많았다고 한다.

조선시대 역대 왕 가운데 의문사한 경우가 11건이라는 통계 도 있다. 그만큼 내부에서 권력투쟁이 치열했으며 명과학 교수 는 자신이 지지하는 대군의 사주를 조작하는 일도 서슴없이 했다고 한다. 물론 은밀하게 진행되었으므로 그에 관한 기록들 이 남아 있을 리 없다.

조선시대 명과학 교수는 단순하게 사주팔자만 보아주는 직업 이 아니라 때로는 대권 향배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

고대부터 정치가와 점술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 계에 있다는 잠언이 이런 대목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다.

# 사람의 분별의 기준 : 신언서판(身言書判)





관상을 보는 것. 남자의 관상을 볼 때 포인트는 눈이다.

쟁기는 눈에서 표줄된다고 본다. 그러나 끼나치게 눈빛이 영영하게 빛나면 총기는 있지만 장수는 못한다고 본다.

관앙의 또 아나의 포인트는 얼굴색이다.(안낮 정오 그늘 밑에서 본다)

언 (言) 언(言)이란 그 사람의 말을 얼마나 쪼리 있게 하는가를 보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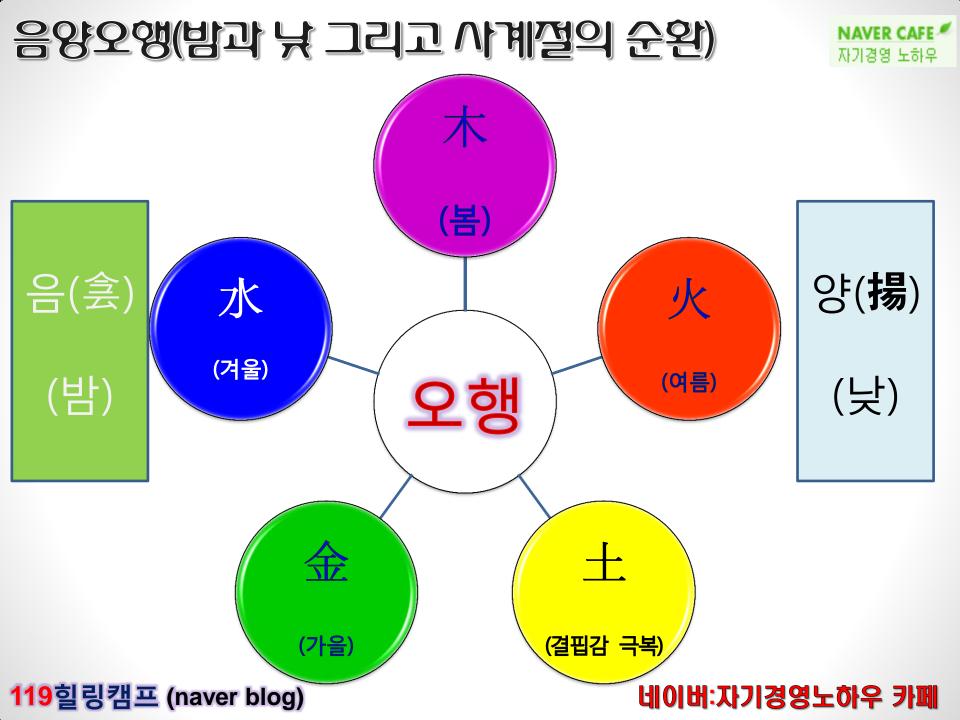
목소리의 색깔을 분석해보는 일이 중요하다.

사람마다 각기 목소리가 다른 이유는 인제 내의 오장육부가 각기 다른 데서 연유한다. 목소리는 인격의 표상이다. 이는 마음 수양에도 발생법을 이용했다.

**서** (書) 서(書)는 글씨다. 좁은 의미에서는 글씨체를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는 문장력을 말한다. 자기 생각의 50%만 말로 표연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은 웅변가라고 할 수 있고, 자기 말의 50%만 글로 전달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은 대단한 문장가에 속한다.

世(判)

판(判)은 판단력이다. 인과 언과 서를 보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판단력을 보기 위해서다. 결국 판단력에서 인간의 능력은 결판난다. 인생사 예스냐 노냐 하는 판단의 연속이다. 지도까의 까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능력 역시 판단력이다.



### 12N|U





출처: http://kazuuun.blog79.fc2.com

최근 한자문화권에서 12지는 요람에서 무덤 까지 일생을 따라다니는 상징이다. 태어날 때는 용띠냐 말띠냐 에서부터 시작해 죽고 나면 무덤 둘레에 12지로 만든 석상을 둘러씌웠다.

김유신 장군의 묘 둘레를 장식한 호석들 은 12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자(子): 쥐 축(丑):소

인(寅):호랑이

묘(卯):토끼

진(辰):용

사(巳):뱀

오(午): 말

미(未):양

신(申) : 원숭이

유(酉) : 닭

술(戌):개

해(亥) : 돼지

## 당사꾸 (唐四柱) 운명 감정법 배워보자



12지와 운명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예가 바로 당사주라고 불리는 운명감정법이다.

자 (子): 쥐 - 귀하다는 의미의 천귀(天貴)

축(丑):소-고생한다는 의미의 천액(天厄)

인 (寅): 호랑이 – 권력을 잡는다는 천권(天權)

묘(卯): 토끼 – 참을성이 부족한 천파(天破)

진(辰):용-꾀가 많은 천간(天奸)

사(巳): 뱀 – 글을 좋아하는 천문(天文)

오(午): 말 - 복이 많다는 천복(天福)

미(未): 양 – 돌아다니기 를 좋아하는 천역(天驛)

신(申): 원숭이 – 외롭다는 천고 (天孤)

유(酉): 닭 - 과격함을 상징하는 천인(天刃)

술(戌): 개 – 사교성을 의미하는 천예(天藝)

해(亥):돼지 – 건강함을 의미하는 천수(天壽)

[보는 법]예를 들어 1960년 음력 5월 5일 인시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태어난 해: 쥐띠(자-천귀) 태어난 해인 자(子)

태어난 달: 태어난 해인 자(子)에서 부터 5월 달을 보면 천간이 걸린다(꾀많은 달에 태어남)

태어난 날: 천간부터 5일을 짚어가면 천고(외로운 날 태어남)

태어난 시: 천고에서 짚어서 인시는 술에서 걸린다(천예: 사교성과 감수성 있는 시에 태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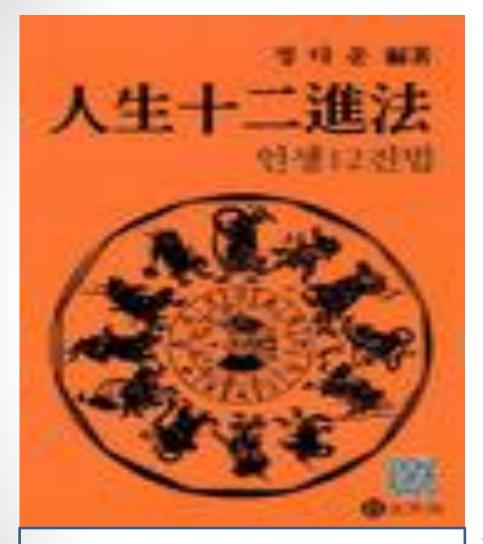
당사주의 틀에서 이 사람 운명 전체를 보면 태어난 날인 5일만 좋지 않고 나머지는 다 좋다.

이만하면 전체적으로 좋은 명조라고 판단한다.

#### 119힐링캠프 (naver blog)

#### 인생십이진법





인생12진법 (정다운 저, 우민사, 2011.06.30)

12지를 이용한 사주감정법으로 유명한 책이 우민사에서 나온 정다운 스님의 <인생십이진법>이다.

1985년 밀알출판사에서 나온 초판까지 더해 아마300만 부 가깝게 판매되었다. 해방 이후 단행본으로 300만 부 이상 팔린 책은

조정래의 <태백산맥> 이나 이문열의 <삼국지>등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사주를 가장 간명하게 설명했다는 데서 찾아야 한 다.

사실 사주명리학은 복잡해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주는 쉽다는 점에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그것이 <인생십이진법> 과 같은 밀리언셀러를 탄생하게 만들었다. 당사주 = 당사주책(唐四柱冊, 중국에서 들여 온, 사주점을 칠 때에 보는 책. 그림으로 점괘 (占卦)를 보게 되어 있다.).

네이버:자기경영노하우 카페

119힐링캠프 (naver blog)

#### 관상은 어떻게 보는가?



관상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좁은 익미로 그 사람의 얼굴만 보는 것이다.** 

넓은 의미로는 얼굴을 포함해 체격, 걸음걸이, 평소의 행동거지, 목소리까지 모두 포함한다.

정확하게 보려면 그 사람과 어느 정도 생활을 같이 해보아야 한다

관상의 역사는?

중국의 왕제시대 당시 의약서로서 상용되었던 〈영추경(靈推經)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우 꾸나라 숙복(淑服)이라는 인물이 여러 왕들의 **상을 보는데서** 틀이 잡이고, 삼국지에서 전설적인 명의 와타도 관상에 능했다.

관상의 기본은?

관상의 기본은 관영찰색(觀形察色)이아고 안다.

관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목구비다. 이목구비의 생김새를 먼저 관찰한 다음 착색(얼굴의 색깔)을 보는 것이다. 찰색은 수시로 변한다.

〈호안지〉의 장량 본인도 관상에 일가견이 있었다고 안다.

## 관상약은 제왕약이다



#### 대통령 관상은 국운과도 관계가 있다

한 가정만 두고 보아도 가장이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집안이 응하고 망안다.

마찬가지로 국가를 관리하는 대통령의 관상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나라의 진로가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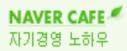
아래 관상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들의 관상을 말하고 있다.

이회창대통령후보 독수리의 눈매와 원숭이의 입

권영길 대통령후보 절벽 위의 산양

정몽준 대통령 후보 아프리카 초원의 얼룩말 노무현대통령 만주벌판의 시라소니

119힐링캠프 (naver blog)



#### 열이 많은 사람은 물소리를 들어라.

물은 정신을 집중하는 방법으로 매우 훌륭한 수단이다. 관음이란 소리를 관한다(집중한다)는 뜻이다. 소리 다음으로 물은 차가움이다. 따라서 불이 많은 사람은 물을 만나야 화기가 내려간다. 폭포 물을 머리에 받으면서 수행하는 도사들을 본다. 이는 화기를 내리는 방법이다.

#### 토가 많으면 물장사가 좋다.

물장사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사주가 있다. 어떤 사주가 물장사를 해야 하는가. 토 체질이다. 사주에 토가 많은 사람은 물이 재물이 된다. 오행의 상극관계에서 토는 수를 이긴다. 이겨 먹는 것이 재물이 된다.



#### 식신생재(食神生財), 베풀어 인심 사면 돈은 따라온다.

식신은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먹이는 기질을 가리킨다.

상대방이 맛있게 먹는 장면을 보면서 흐뭇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팔자에 식신이 발달돼 있다고 본다.

식신의 3가지: 적선(積善), 기마이, 뇌물

적선 : 인정의 발동,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행위 기마이 : 마음에 들고 기분이 맞으면 돈을 쓰는 기질

뇌물: 대가를 계산하고 베푸는 것

<정당하게 베풀었는가>의 문제가 있으나 베풀어서 사람의 마음을 사면

그 대가로 돈이 들어온다는 말이다.

#### 재다신약(財多身弱), 돈이 많으면 몸이 약해진다.

약한 사람에게 재물만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해가 된다.

이를 명리학에서는 재다신약(財多身弱)이라고 부른다. 남자 사주에서 재물은 여자와 같다고 한다. 재다신약 사주라는 것은 몸은 약한데 마누라를 세 명쯤 데리고 사는 이치와 같다. 이 집 저 집 만족시켜주러 다니다 보면 몸이 거덜나기 마련이다. 신강해야 재물을 감당한다.

#### 119힐링캠프 (naver blog)

## 팔까 고치는 여섯 가지 방법



- 1 적선(積善)이라. 주변사람들에게 우호적이 된다.
- 2 **중은 스승을 만나라.** 이성계는 무약대사를 만났다.
- 3 독서를 하라. 간접 경험을 배우고 지예를 얻는다.
  - 4 기도(명상, 참선 등)를 하라. 짜기 정찰을 하라.
- 5 명당을 써야 한다. 껍터가명당이면 잠까리가면하다.
- 6 **지기사꾸팔자를 일이야 한다.** 내자인을이는 것이중요이다.



남의 책을 많이 읽어라 남이 고생하여 얻은 지식을 아주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으로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소크라테스-

- ◈ 작성자 : 박승균 (010-6319-9961, varadori@naver.com)
  - 북 칼럼니스트
  - 동료상담지도사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상담심리치료전공 학업 중 ]
  - **'119힐링캠프** 블로그' 운영자
- ◈ 김철홍 대표위원 [011-9763-6739 seouls9001@naver.com]
  - 중소기업 w/s 특강 강의 : 변화관리, 생존전략, 인생역정, 세일즈, 나도 1억 대박, 인생설계, 성공

#### "독서를 통한 자기경영 고급정보"

네이버:자기경영노하우 카페 북칼럼에 공개합니다. 누구나 정보를 얻어 가실수 있습니다." 행복, 자기관리, 자기경영, 자기계발, 시간관리, 목표관리, 재테크, 제2막 인생설계, 세일즈, 성공, 중소기업 경영, 자영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시길 원하시면 노크해 하세요.

119힐링캠프 (naver blog)